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64호 [루게 제24777호] 주제103(2014)년 12월 30일 (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851군부대 관하 녀성방사포병 구분대들의 포사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851군부대 관하 녀성방사포병구분대들의 포사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최룡해동지, 황병서동지, 현영철동지, 김영철동지, 오금철동지, 김명식동지, 최영호동지, 김영복동지, 오일정동지, 한광상동지, 리병철동지, 김여정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를 조선인민군 화력지휘국장인 룽군상장 박정천동지를 비롯한 지휘성원들이 맞이하였다.



가를 직접 검열하고 철저히 준비시키기 위해서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인민군대는 이제 당장이라도 전쟁의 총포성이 울릴수 있다는 자각, 싸움준비완성에서는 래일이란 없다는 각오를 안고 평시의 하루하루를 훈련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휘관들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훈련을 강화하는데 군사정치사업을 철저히 지향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인민군대에서 올해에 훈련을 많이 하였는데 다음해에도 실전능력판정과 같은 각종 훈련을 더욱 강도높이, 더 자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포사격훈련계획을 청취하시고 훈련을 시작할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몸소 지퍼추신 명포수운동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평시훈련을 통하여 그 어떤 어려운 전투정황도 능숙히 처리할수 있는 높은 능력과 담력을 키워온 녀성방사포병들은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지켜보시는 속에서 신속히 화력진지로 기동전개하여 포탄을 장탄하고 목표를

조준경안에 넣었다. 이윽고 천지를 진감하며 노호하는 포성과 함께 시뻘건 불출기들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 목표구역을 연속 타격하였다.

목숨보다 소중한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을 해치려고 어리석게 날뛰는 미제침략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은 백두산혁명강군의 타격권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는것을 선언하며 원추격멸의 포탄들이 목표구역을 초도화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포사격을 잘한다고, 명중이라고, 녀성방사포병들이 포를 정말 잘 쏜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훈련은 반미대결전을 총대로 결산하고 최후의 승리를 기어이 안아오고야말 영웅적조선인민군의 결사의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851군부대의 녀성방사포병들이 훈련을 강도높게 진행한 결과 이제는 모두가 다 명중탄을 날릴수 있게 철저히

준비되었다고, 새 년도 전투정치 훈련의 첫 포성을 장쾌하게 울리였다고 하시면서 포사격훈련이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군대는 싸움을 위해 존재한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임의의 시각에 불의의 정황을 주면 서 예상 못할 형식과 방법으로 부대들의 훈련을 강도높게 조직지도하는 것은 부대들이 당장이라도 간악한 적들과 싸워 승리할 준비가 되였는

조직진행하여 군인들을 일당백의 싸움군들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제851군부대의 녀성방사포병들은 자기들의 훈련을 또 다시 지도하여 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의도를 심장깊이 새기고 명포수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퍼올림으로써 주체적인 포병전법에 정통한 백발백중의 명포수로 튼튼히 준비해갈 불라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3돐 경축

중앙보고대회 진행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3돐 경축 중앙보고대회가 29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주체의 선군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혁명의 한길에서 천만군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것은 태양조선의 크나큰 자랑이고 행운이며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튼튼히 담보한 역사적 사변이었다.

대를 이어 수령부, 장군복을 누리는 끝없는 기쁨과 환희에 넘쳐 혁명적경사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탁월한 사상과 특출한 명도력, 숭고한 인력으로 백전백승의 혁명실력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있다.

대회장인 4.25문화회관은 정력적인 선군령도로 반미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 위업을 승리에 이끄시며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강대성과 영웅적기상을 높이 펼쳐주시며 인민의 꿈과 리상을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열화같은 충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 있었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휘날리는 붉은 기록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있었다.

추석단배에는 승리와 영광의 상징인 원수별도형과 《경축 3돐》이라는 글씨가 걸려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뜻깊이 이어가자!》라는 구호가 대회장에 나붙어있었다.

추석단배에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방공군, 로동적위군 군인들이 세뿔이 있었으며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대회에는 평양시안의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 당, 무력, 성, 중앙기관 일꾼들, 공로자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

내무군 장병들,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 일꾼들, 로력혁신자들이 참가하였다.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리영길동지, 리용무동지, 김인홍동지, 김평해동지, 박범기동지, 오수용동지, 조연준동지와 당, 무력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꾼들, 당의 선군혁명위업수행에서 모범적인 군대와 사회의 일꾼들, 영웅들, 공로자들이 추석단에 나왔다.

대회는 《혁명무력은 원수님 평도만 받든다》노래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이며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육군대장 리영길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대회는 불세출의 선군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억세게 싸워나감으로써 선군조선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력사와 전통을 영원히 빛내어나갈 참가자들의 혁명적열정이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노래주악으로 대회는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사설

천하제일명장을 모신 우리 혁명무력은 무적필승이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당의 평도따라 올 해를 거창한 투쟁의 해, 자랑스러운 승리와 비약의 해로 빛내인 커다란 공지를 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3돐을 맞이하고있다.

이날을 맞으며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진군들을 찾아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백두산대국을 승리와 번영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있다.

지금으로부터 3년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과 전당, 전군, 전민의 한결같은 의사에 따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것은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에서 결정적의를 가지는 역사적사변이었다. 또 한분의 회세의 명장을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모시으로써 80여성상의 장군을 더 높이 승리나갈수 있는 근본담보로 마련되게 되었다. 민족최대의 국상을 당하고 피눈물속에 몸부림치던 우리 군대와 인민이 슬픔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어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진군길을 위대한 승리와 번영으로 빛내어나갈수 있게 된것은 역사의 이날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우리 당의 선군혁명역사에서 12월 30일은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대를 이어 수령부, 최고사령관복을 누리는 크나큰 행운과 영광을 깊이 새겨주고 불세출의 선군명장의 평도따라 승승장구하는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에 대한 확신을 억세게 다져주는 민족적대경사의 날로 길이 빛날것이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는 평양으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훌륭히 갖춘 백두산형의 장군입니다.》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을 탁월한 정치가로서뿐 아니라 결출한 명장으로서의 자질과 품격을 완전무결하게 갖춘 장군형의

평도자에 의해서만 대를 이어 계승완성되어나갈수 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은 세계가 공인하고 칭송하는 혁명의 결출한 수령, 전설적인 선군명장이시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품격과 자질을 그대로 완벽하게 체현하시고 거창한 혁명실전에서 천출명장으로서의 세련된 명도력을 남김없이 파시해나가는분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지난 3년간은 주체의 선군위업수행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난 공지 높은 로정으로 빛나고있다. 하늘처럼 넓고 따듯한 민족의 자주적운명개척의 강령적인 무기인 혁명무력의 강화발전에서 새로운 전성기가 펼쳐지게 된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평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선군명도는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의 백두산혁명강군의 성격을 더욱 공고히 하고 그 전투적위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운 결정적요인이었다. 전군이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당의 위업을 총대로 굳건히 담보해나가는 선군혁명의 민중적인 최후대, 역사의 지지점으로, 최고사령관과 뜻과 정을 함께 하는 진정한 전우부대, 동지부대로 강화발전된것은 그 무엇보다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성과이다. 위대한 백두명장의 평도를 받는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이 있었기에 지난 3년간 선군조선의 승리의 전통이 더욱더 찬연한 빛을 뿌리게 되었고 미래와 그 추종세력들은 수치스러운 패배의 전통을 답습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단 한치의 타협과 양보, 자비와 관용도 없이 백두의 혈통,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걸사수호해나가는 우리 인민군대의 결결한 반제투쟁의지와 무한대한 타격력은 원수들을 전멸시켰으며 세계를 끝없이 경탄시켰다.

인민군대를 기둥으로, 본보기로 하여 전 반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평도는 이 땅위에 선군조선의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열어놓았다. 조국청사에 특기할 건설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며 조선속도주투쟁을 주도해나가는 핵심부대로 인민군대이고 생산기지들을 주체화, 현대화하고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하는데서 개척자, 선구자가 된것도 우리 군대이다. 총공격전의 맨 앞장에서 질풍같이 내달리는 인민군장병들의 투쟁기풍과 창조분배가 온 사회에 파급되는 속에 전체 인민의 사상정적전성품모가 일신되고 모든 전선에서 눈부신 성과들이 현실되고있는것이 선군조선의 경도적일룩실이다.

역사의 생년기를 과감히 헤치며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굳건히 옹호하고 선군조선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은 바로 여기에 지난 3년간 투쟁의 주된 승화과정이다.

새로운 주제 100년대진군경에서 기록된 자랑찬 성과들은 선군혁명위업을 승리로 조직명도하시는 우리의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성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천체적인 예지와 비범한 지략을 지니신 군사적영재이다. 백과전서적인 군사적식견과 창조적안목, 심비한 통찰력과 판단력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특출한 자질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군사적안광으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선군혁명사상과 주체적군사전략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시였으며 참예한 반제반미대결전에서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고 련전승을 안아오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예지와 지략은 천만군대로 얹혀있는 군사적전상의 본질과 진상을 환히 꿰뚫어보고 멀리 앞을 내다보는 천리혜안의 과학적통찰력이며 상상력을 초월하는 신묘한 전략술로 적들의 기도를 시초에 무자비하게 꺾어버리는 무원전승의 공격방략이며 그 어떤 불리한 정세도 역전시켜 유리한 국면을 열어나가는 전화위부의 보검이다. 끊임없는 현지시찰의 길에서 해당 군공과 병종, 전문분야의 군

사전문가들도 무색케 하는 우리 식의 기묘한 작전전투방안들을 밝혀주시는 만능의 명장도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며 미국과 온갖 적대세력들이 몰아온 압살의 풍파를 길어 헤쳐유국으로서는 선군조선의 지위를 확고히 다지신 회세의 전략가도 우리 원수님이시다.

에로부터 적을 알고 자기를 알면 백전백승한다고 하였다. 지금 세계여론들은 북의 최고수뇌부는 미국을 파악하고있지만 미국은 북의 최고사령관에 대하여 너무도 잘 알고있고, 조미대결전에서 누가 승자가 되고 패자가 될것인가는 변하다고 평하고있다. 미국의 대우목회원정연습이 벌어지고있던 일촉즉발의 시각에 최전연인 판문점과 무도, 장제도를 현지시찰하신것도, 나라의 명공을 개방한 상태에서 비행사들의 대회를 성대히 진행하도록 하신것도 오직 지구를 뒤흔들 배짱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이 단행하실수 있는 력사의 패거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강철의 신념과 담력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엄숙한 시련속에서도 승리를 확신하며 용감무쌍하게 투쟁하고 창조해나갈수 있게 하고있으며 적들의 수세에 빠져 갈팡질팡하는 형국을 펼쳐고있다. 상대가 힘이 약하고 굳세지 못하면 기고만강하여 덤벼들다가도 사생결단의 각으로 맞받아나간머리 숙이고 굽

어드는 비겁한 무리가 미재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와 세계인민들은 비타협적인 혁명적원칙성과 무비의 담력으로 제국주의반동들의 전쟁광증을 박산내고 세계최대의 열적지역인 조선반도에서 나라와 민족, 인민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해나가는 백두의 선군명장의 언덕을 영원히 잊지않을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특출한 명공술로 군건설과 군사활동에서 세계적인 기적을 창조해나가는 군사적 거장이다.

독불장군이라고 회세의 명장도 백승을 펼쳐서만 반드시 자기의 사상과 위업을 따르고 받드는 충실한 전우들의 대군단이 있어야 한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명공술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공술의 근본특징은 숭고한 뜻과 인력으로 무장력의 정제인 군인대중의 사상과 감성, 마음을 틀어잡고 일심인 대군의 위력으로 승리를 이룩해나간다는데 있다.

백두의 선군명장의 비범한 명공술은 군인의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정치사업, 군인대중의 정신력발동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 위나는 사상중심의 명공술이며 열화같은 동지애와 의리로 전체 장병들을 묶어세우고 이끌어나가는 사랑과 믿음의 명공술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평도면이 인민군인들모두가 김정은애국주의를 피와 뱃으로 간직하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과 투철한 계급의식, 도덕의리심을 지닌 정신적장자들로 억세게 자라나고 있다. 슬하의 장병들 한사람한사람을 선군혁명의 길에서 생사를 같이하는 동지, 전우로 대하시며 뜨거운 사랑과 육친의 정을 부여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야말로 력사가 되고 방패가 되어야 한다. 전당과 온 사회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명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당의 구상과 결정을 죽으나사나 무조건 끝까지 현실로 전변시켜나가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나가야 한다.

새해 주제 104(2015)년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0돐과 조국해방 70돐을 맞는 우리 혁명력사에 특기할 해이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뜻깊은 다음해에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길을 더욱 활활 지펴올림으로써 자주시대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는 가장 로속하고 세련된 항도적력량인 위대한 우리 당의 권위와 선군조선의 대대적인 기상을 만반에 높이 펼쳐야 한다.

전당, 전군, 전민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더욱 철철같이 뭉쳐 원수님의 사상과 평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야 한다.

선군조선의 운명이고 우리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을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걸사옹위하는 철벽의 성세가 되고 방패가 되어야 한다. 전당과 온 사회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명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당의 구상과 결정을 죽으나사나 무조건 끝까지 현실로 전변시켜나가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나가야 한다.

천하제일명장을 높이 모신 우리 혁명무력의 불패의 기상과 위력을 만천하에 펼쳐 나가야 한다.

3 번 으 로 계 속

주제 100년대의 진군경에서 인민군대가

백두의 천출명장을 높이 모신 선군조선의 끝없는 영광과 긍지

위대한 령장의 발걸음따라 최후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한해가 저물어간다. 격동적인 사변들도 많았고 추억 또 한 뜨거운 2014년,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3월을 맞이한 격정과 환희가 온 나라에 차 넘치고있다. 하늘이 호곡하던 피눈물의 언덕에서 백두산대군의 힘이 되시고 하늘이 되시어 천만군민을 불러일으키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 경애하는 그의 전우가 되어 최후승리를 향한 조국변영의 서사시를 땅에 아로새기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무엇을 절감하였던가. 강력한 총대우에 조국의 존엄과 인민의 행복도 평화도 있다는 확신이었다. 백두산칼바람으로 이 땅을 주름잡고 있고 백두산총대의 위력을 천백배로 강화해 가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계시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굳은 믿음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온 나라 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생하시는 위대한 김정은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 우리의 장창한 앞날을 축복해주시고 천하무적의 백두산혁명강군과 불굴의 군인대단결이 있으며 당의 위업을 광선과 의리로 밝히려는 충직한 인민이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것입니다.»** 선군은 조선혁명의 장구한 실천투쟁에서 검증된 필승불패의 진리이다. 백두산총대의 위력으로 승리할철 우리 혁명의 미래를 확신하시며 전진길에서 뜻있는 선군들을 맞이하며 한 번의 심장을 얼마나 환희로 설레이게 하였던가. **«동무들! 승리를 확신합니다. 백두의 미래는 우리 인민의것입니다. 인민의 행복과 안녕, 백두산대군의 존엄을 지켜 혁명의 총대를 더욱 굳게 들어잡습니다.»** 최후승리에 대한 의의의 신념, 선

군조선의 무적막강한 군력에 대한 커다란 민족적자부심을 한껏 느끼게 하는 선군령장의 이 선언앞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심장깊이 새긴 철리가 있다. 백두산대군의 불패의 군력! 그것은 단 한결음의 양보도, 순간의 주저도, 한치의 드림도 없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지니시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변함없이 나아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변의 신념과 의지, 끝없는 로고와 헌신의 결집체라는데 있다. 3년, 폐사롭게 흘러간 날과 달들이 아니었다. 누구나 심장속에 영원히 지울수 없는 뼈아픈 상처를 간직하고 있고 사령관님만을 우리르던 피눈물의 12월에서 우리의 위성이 하늘로 날아오른 민족사적대승사를 안아온 12월에서, 창조와 건설의 최전성기에서 대변영기가 펼쳐지는 장엄한 투쟁과 위대한 변혁의 12월에서 줄기차게 전진해온 날과 달들이었다. 민족대국상을 당한 피터지는 가슴들에 마구 칼질을 해대며 무분별하게 날뛰는 호전파들의 전성도발기도 걸음마도 짓부시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과 피외적권세력의 모략책동을 백두의 칼바람으로 단호히 쳐갈기며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불러온 나날들이었다. 혁명의 모든 중하를 한몸에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국앞에 가장 엄중한 난관과 시련이 밀려들던 그때 우리 군대와 인민을 불러일으키고 선군혁명명도의 새로운 장을 펼치시였다. 새해의 첫아침 근위광복부대에 선군혁명명도의 큰걸음을 내걸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넋과 숨결, 제온이 그대로 이어있는 우리 혁명백두를 그 어떤 대적도 타살할수 없는 백두의 혁명강군으로, 최강의 군대로 키우시였다. 수령님께서 걸으시였고 장군님께서 헤치시였던 선군혁명의 그 길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꼭 가야 할

길이다. 나는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한형생 권고걸으신 선군혁명의 길을 끝까지 이어나갈것이다. ... 이런 철성의 의지를 안으시고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를 굳건성의 총적임무로 제시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이어가신 선군장정의 길,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께서 헤치신 선군길은 누구나 걸을수 있는 길이 아니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어머니장군님의 손길에 불패의 전투력을 지닌 정예대로, 무적의 강군으로 자랑한 영웅적조선인민군이 지켜졌기에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도 불패의 보루로 영원히 솟아 빛날것이라고 하시며 조선인민군 특공,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합동타격훈련을 지도해주신 날도, 선군의 산악 오성산의 초소들과 적어대결의 최전방인 판문점, 최대열점지역의 전초지진원 월내도방어대를 찾으시어 일당백명용의 나래를 달아주신 날도 있었음을 선군령장의 전진길은 말해주고있다. 군력강화의 4대전략적로선과 3대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모든 인민군 장병들을 백전백승의 김일성-김정일 전략술과 대담무쌍한 공격방식, 완벽한 전투능력을 제득한 진격파싸움군대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하시며 12월의 추운 날씨에 새년 혁명의 모든 중하를 한몸에 지니신 인민군인들을 찾으신 날도, 주체의 건군사에 령장표로 되는 뜻깊은 대회를 마련해주시고 종대강화의 불패의 대강을 밝혀주시고 날도 방선전리의 선군길은 전하여주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제시하시며 '속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 '항일혁명선열들이 피뎠는 심장도 무럭무럭 자라도록 키워라', '오늘도 우리 가슴에 그들의 맥동이 그대로 살아숨쉬는 이 신념의 구호를 심장마다에 쏘아박고 수령님과 장군님들더 이어 온 우리 혁명이 빛나게 완수되는 그 날을 하루라도 더 빨리 앞당겨오기

위하여 불굴의 신념으로 역세게 싸워나가자고 힘있게 호소하시였다. 강성국가건설을 진두지휘하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몸소 대회를 지도하시며 전군의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들이 대대강화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혁명적지침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우리러 전체 참가자들은 영광의 환호를 올렸다.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조선인민군 초병대회,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 조선인민군 제2차 후방일군대회... 이 뜻깊은 대회들마다에서 우리 인민군 장병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영원한 총대우, 열렬의 전우가 되어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백두산혁명강군의 위용을 펼쳐갈 의의의 신념과 의지를 만장일치하였다. 인민은 시작되고 사람으로 수놓아진 선군령장의 위대한 발걸음따라 우리 조국은 이 세상 누구도 범접 못하는 불패의 강국으로 그 이름 빛내일수 있었다. 최고사령관동지의 계일정신, 계일전우,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 혁명의 지지점, 바로 이것이 백두산혁명강군의 참모습이다. 불패의 군력으로 이 땅위에 거머잡고 방방명망하는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실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를 지니시고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을 최후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나가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위대한 원수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은 선군조선의 존엄과 국격을 만방에 떨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게서 영원히 빛날것이며 백두산대군의 부강조국의 완만한 마음은 반드시 앞당겨줄것이다. 최고사령관님 높이 날리며 영원히 백두산혁명강군의 창창한 앞날을 축복하며 위대한 선군령장의 선언이 최후마당 강산을 진갈것이다.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본사기자 리 금 분**

위하여 불굴의 신념으로 역세게 싸워나가자고 힘있게 호소하시였다. 강성국가건설을 진두지휘하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몸소 대회를 지도하시며 전군의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들이 대대강화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혁명적지침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우리러 전체 참가자들은 영광의 환호를 올렸다.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조선인민군 초병대회,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 조선인민군 제2차 후방일군대회... 이 뜻깊은 대회들마다에서 우리 인민군 장병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영원한 총대우, 열렬의 전우가 되어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백두산혁명강군의 위용을 펼쳐갈 의의의 신념과 의지를 만장일치하였다. 인민은 시작되고 사람으로 수놓아진 선군령장의 위대한 발걸음따라 우리 조국은 이 세상 누구도 범접 못하는 불패의 강국으로 그 이름 빛내일수 있었다. 최고사령관동지의 계일정신, 계일전우,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 혁명의 지지점, 바로 이것이 백두산혁명강군의 참모습이다. 불패의 군력으로 이 땅위에 거머잡고 방방명망하는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실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를 지니시고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을 최후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나가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위대한 원수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은 선군조선의 존엄과 국격을 만방에 떨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게서 영원히 빛날것이며 백두산대군의 부강조국의 완만한 마음은 반드시 앞당겨줄것이다. 최고사령관님 높이 날리며 영원히 백두산혁명강군의 창창한 앞날을 축복하며 위대한 선군령장의 선언이 최후마당 강산을 진갈것이다.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본사기자 리 금 분**

우리의 인민군대만이 할수 있는 일

오늘의 천리마기수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부강조국건설의 일대 변영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시대를 주름잡는 오늘의 천리마기수들이라는 최상의 평가를 주신 우리 인민군대는 이르는 곳마다에서 눈부신 건설속도, 새로운 조선속도를 창조하고있다. 지난해 11월 송도원국제소년단영소년개건공사에 진입한 인민군인들은 몇몇달사이애 몇몇영소를 당의 후대판이 비친 영영이건속도로 훌륭히 개건하였다. 평양유아원, 애육원건설과 연평과과학사육소건설을 맡은 인민군인들은 불과 4개월 남짓한 기간에, 김정숙영양방직공장 로동

자합속건설에 참가한 군인건설자들은 18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맡은 대상들을 훌륭히 일떠세웠다. 인민군인들은 군인협동작전의 위력으로 불과 7개월동안에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일떠세웠고 몇개의 대상건설과 맞먹는 5월 1일경기장개건보수공사는 10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사실장과 10월 8일공장...
참으로 부강조국건설의 일대 변영기를 대표하는 이런 창조물들은 우리 군대만이 일떠세울수 있는것이다.

황금해력사조의 선구자

조국의 바다를 들끓고있다. 사회주의바다항기가 그윽하게 넘쳐 최전연의 초소들은 물론 마을마다, 집집마다 행복의 웃음소리 높아지고있다. 조국의 바다를 황금해로 빛내이는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통방사나온 날마다와 싸우면서 기적을 창조해가는 인민군대의 수산부문 일군들과 어로공들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온 나라에 퍼져가는 사회주의바다항기! 물고기떼가 날라나기를 알아서 기다리지 않고 물고기떼를 찾아부담히 기동하면서 낮과 밤이 따로

군인대단결의 선구자

용용들도 마면해주었다. 문화회관에서 뜻하지 않게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들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초상화와 당의 기부자들을 정히 인내하고 인민의 생명财产安全을 위해 조선인민군 정치철소부대 군인들과 조선인민군 령속소속부대 병사들이 헌명적투쟁을 벌였다.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는다. 기호를 들고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가며 인민을 위해서라는 생명도 서슴없이 내대는 이러한 훌륭한 군대는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우리 군대밖에 없다. **본사기자 원수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친히 사진찍어주시는 여성추격기비행사들의 모습, 그 환희가 주는 감동은 지금도 나의 마음속에 짝 차있다. 나처럼 처녀들이 추격기비행사라는 놀라운 사색은 명공보위의 제 1선, 공격서열에 여성들이 당당히 나섰음을 말해주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여성들은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힘 있는 역량입니다.»** 나에게도 비행복 차림으로 행복과 환희에 넘쳐있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사람이다.

것은 눈이 아니라 너인들의 억울한 눈물이었고 나를수룩 물친것은 승명으로 되어버린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불평등과 고역뿐이었다. 오랜 세월 물동이는 우리 녀성들이 피어날새라 지리라도 그들의 머리를 내리놓았다. 그러던 물동이아 오늘은 추격기비행모자로 바뀌었다. 물동이로부터 비행모자로, 그것은 조선녀성들의 운명에 서 일어난 극적인 변화의 속도가 아니겠는가.

고, 그 모범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할수 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웃음이 오늘도 나에게 들려오는것만 같다. 조선녀성들은 이악하기때문에 남자를 못지 않게 비행기를 잘 탈수 있다고 하시며 첫 여성비행편대를 무어주시고 각별한 사랑을 부여주시며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품속에서 자란 조선녀성의 긍지와 존엄은 비행기와 함께 대지를 박차고 하늘에 날아올랐다.

사이에 키워낸 령장의 위대성이 나의 가슴에 사무쳐왔다. 예로부터 명장일에 약졸이 없다고 하였다. 조선의 녀성들은 불굴의 녀성혁명가들로 키울 위대한 녀성을 안으시고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과 사랑이 녀성비행사들에게 불가능을 모르는 힘과 열정을 주었다. 나처럼 처녀비행사들이 그리도 대견하시어 그들의 사진까지 친히 찍어주시면서 영광과 행복의 최절정에 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그렇다. 물동이의 주인

고향의 당부, 어머니들의 부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보람찬 삶을 안겨주고 빛내여주는 어머니조국을 함축해내며 부위하는것보다 더 중대하고 영예로운 일은 없으며 조국보위에 바쳐진 삶보다 더 값높은 삶은 없습니다.»** 올해에도 온 나라의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조국보위초소에 보내주었다. 향애하는 원수님을 무장으로 받들어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지켜갈것이다. 인민군대에 입대한 젊은이들은 혁명투쟁의 여전한 주인들로 되었다. 녀성들의 운명에서 일어난 변혁의 력사는 우리 인민이 대대로 누리는 최고사령관부축에 마련되었다는 생각이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하였다. 사진속에서 하얀 비행모와 함께 활짝 웃으며 녀성추격기비행사들이 떠나는 격정의 목소리가 울리는것만 같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들 최고사령관으로 모시어 우리가 정령 못할 오새만 없고 소멸하지 못할 장정이라 없다. **본사기자 한 영 민**

늘어나는 군인가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들을 총대중시사상과 응군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켜 군대를 적극 내세우고 불침번으로 원호하는 사임이 전사적적으로 힘있게 벌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대관군 대원리 39인민군을 살고있는 김영호동무와 그의 아내 고영숙동무는 자식들을 끝까지 키워 조국보위초소로 떠나보내고있다. 이 들부부는 자식들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총대명사로 내세우는것은 자기들의 용감한 본분이라고 하면서 지난 고난의 행군시기부터 8명의 자식을 낳아기웠다. 나라가 있고야 개인의 운명도, 가정의 행복도 있다고 늘 이야기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가슴에 새기며 자란 여러 자식들이 학교를 졸업하자 혁명의 군복을 입고 최전연초소로 달려나갔다. 3명의 자식들이 인민군대로 환원한데 이어 5명의 나머지 자식들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총대명사가 될 불라는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늘어나는 군인가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들을 총대중시사상과 응군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켜 군대를 적극 내세우고 불침번으로 원호하는 사임이 전사적적으로 힘있게 벌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대관군 대원리 39인민군을 살고있는 김영호동무와 그의 아내 고영숙동무는 자식들을 끝까지 키워 조국보위초소로 떠나보내고있다. 이 들부부는 자식들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총대명사로 내세우는것은 자기들의 용감한 본분이라고 하면서 지난 고난의 행군시기부터 8명의 자식을 낳아기웠다. 나라가 있고야 개인의 운명도, 가정의 행복도 있다고 늘 이야기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가슴에 새기며 자란 여러 자식들이 학교를 졸업하자 혁명의 군복을 입고 최전연초소로 달려나갔다. 3명의 자식들이 인민군대로 환원한데 이어 5명의 나머지 자식들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총대명사가 될 불라는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수필

녀성추격기비행사

그 운명 전환을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안아오시였다. 력사상 처음으로 우리 녀성들의 머리에 오각별빛나는 군모를 얹어준 조선인민혁명군 녀성중대의 전통은 녀성당크스중, 녀성비행대, 녀성비행편대로 이어져 녀성의 활동무대를 넓혀나갔다. 녀성의 체질에 맞게 훈련비용과 비행기구조를 고쳐주도록 하시고도 주체 4 (1952)년 설날의 하루를 첫 처녀비행사를 위해 비치시며 조선녀성들은 항일무장투쟁을 할 때부터 남자들에게 못지 않게 잘 싸우는 전통을 가지고있다고, 그들은 모든 난관과 시련을 뚫고 일제와 끝까지 싸워 승리하였다

조선녀성들은 이악하기때문에 남자를 못지 않게 비행기를 잘 탈수 있다고 하시며 첫 여성비행편대를 무어주시고 각별한 사랑을 부여주시며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품속에서 자란 조선녀성의 긍지와 존엄은 비행기와 함께 대지를 박차고 하늘에 날아올랐다.

사이에 키워낸 령장의 위대성이 나의 가슴에 사무쳐왔다. 예로부터 명장일에 약졸이 없다고 하였다. 조선의 녀성들은 불굴의 녀성혁명가들로 키울 위대한 녀성을 안으시고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과 사랑이 녀성비행사들에게 불가능을 모르는 힘과 열정을 주었다. 나처럼 처녀비행사들이 그리도 대견하시어 그들의 사진까지 친히 찍어주시면서 영광과 행복의 최절정에 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그렇다. 물동이의 주인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복속으로 사수할 불같은 결의에 넘쳐있는 인민군인들

늘어나는 군인가정
우리 사회에서 군인가정, 총대가정이라는 말보다 더 자랑스러운 부름은 없다. 자기 자식을 귀중히 여기는것은 부모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지만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들을 조국보위초소에 서슴없이 내세우고있으며 그 길에서 애국의 마음을 더욱 가다듬고있다. 안락군 신촌리에서 사는 정보현, 리정혜동무와 언동리에서 사는 오영환, 류신희동무도 자식들을 조국보위초소에 몇몇달 배세운 총대가정들이다. 이 가정들에서는 총대가정의 자랑을 안고 인민군후방가족단체인 인민군인화사업에서도 양장서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있다. 정보현, 리정혜동무는 인민군인들에게 대한 인화사업을 힘있게 벌리면서도 올해 4월에는 외동딸 정혜옥을 조국보위초소로 떠나보냈다. 오영환, 류신희동무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사랑하시는 인민군인들은 모두가 자식이 나 같다고 하면서 지난 10여년간 인민군인들에게 대한 인화사업을 돌심함으로 하였으며 자식들을 인민군대에 내보냈다. **본사기자 홍 성 철**

우리 시대 보건일군의 전형인 립현단동무처럼 살며 일하자

기사 《이런 아름다운 사회주의제도에서 우리가 산다》에 대한 보건일군들의 반향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빛내이리

화선군인들의 정신으로

지난 22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기사 《이런 아름다운 사회주의제도에서 우리가 산다》를 읽은 보건일군들의 가슴가슴은 커다란 격정으로 설레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보건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1960년대 천리마시대의 로일군들이 지닌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찬양하며 온 나라가 들끓었던 그때의 환희와 격정이 그대로 재현되는데는 못된다.

천리마시대 로일군들이 발휘하였던 그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그대로 이어받은 립현단동무와 같은 세 세대 보건일군이 또 다시 나온것은 인민을 제일로 위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

에서만 있을수 있는 자랑스러운 일이다.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인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들을 제시하고 사람들이 병이 날새 예방의학을 철저히 알세우는 우리 당의 크나큰 인민사랑과 혁명한 령도,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보건제도가 있기에 립현단동무와 같은 시대의 전형이 나왔다고 생각한다.

지금 치료예방부문의 모든 로일군들은 립현단동무가 발휘한 소행을 따라배워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최대한 발양시켜나갈 때 높은 열의에 넘쳐나고 있다.

립현단동무의 8년 동안의 치료과정이 보여주시는것처럼 로일군들이 높은 의술과 뜨거운 정성을 지니면 이 세상에 고치지 못할 병이 없고 질병 못할 참담요새도 없다.

기사에서 우리는 객관적조건

에 앞서 누구나 립현단동무처럼 환자에게 친절육의 정을 기울여 주고 자기의 한생까지도 강고리 바쳐갈 각오를 가지면 소생의 기적도 창조될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았고 배웠다. 오늘날 우리의 보건부문은 자본주의와의 대결전의 가장 첨예한 하나의 전선과도 같으며 우리 보건일군들은 공화국의 존엄과 사회주의제도를 지켜싸우는 전초선의 병사와도 같다. 우리 보건일군들이 립현단동무처럼 인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피와 살, 필요하다면 한생도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내는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투쟁할 때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계시는 우리 원수님께서 빛내어주시고 계시는 우리의 사회주의보건제도가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할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조선적십자종합병원에서

타오른 한집의 불씨는 지금도 나라에 세한 불길로 번져가고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 학대학병원, 류경수강원원, 옥류 아동병원을 비롯한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병원들에서 본보기단위로서의 영예를 떨치기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다음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국보건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격사적인 서한 《보건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를 보내주신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대성에서는 이미 고도로 양양된 선진의 열의에 맞게 전국적의 모든 치료예방기관들에서 정성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향기가 가득 차넘치게 하겠다.

두에산골로부터 외진 섬에 이르기까지 그 어디에서나 로일군들의 책임성과 열의를 최대한 높여 립현단동무가 발휘한 아름다운 소행들을 이 활짝 꽃피어나도록 함으로써 온 나라에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향기가 가득 차넘치게 하겠다.

보건성 국장 김경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의료봉사사업을 잘하여야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적극 보호증진시킬수 있으며 전반적무상치료제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휘시킬수 있다.》

지난 22일부 당보에 실린 기사 《이런 아름다운 사회주의제도에서 우리가 산다》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너야 의사가 아니라, 전쟁때 화선군인들은 다 죽은 사람도 살려냈는데...》

환자앞에서 산뜻 용단을 내리지 못하고있던 립현단동무는 이 목소리를 자기의 어머니가 아니라 간호원로병의 엄숙한 목소리로 새겨안았다.

하기에 그는 어쩌면 한생을 강리대 바칠수도 있는 그 어려운 치료전투에 용감 뛰어들수 있었으며 끝끝내 심한 화상입고 고통을 겪던 한 처녀의 얼굴에 밝은 미소를 안겨줄수 있었다.

그가 누르는 아픔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환자로써만이 아니라 생사를 같이하는 혁명동지로서, 피와 살을 나눈 친혈육으로 생각한다면 불가능이 있을수 없고 그 어떤 기적도 창조할수 있다. 바로 이것이 인간에 대한 참다운 사랑과 정성을 지니고 8년세월을 하루와 같이 바쳐 기적을 창조한 립현단동무에 대한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 로일군들이 다시금 절감하게

되는 귀중한 진리이다.

병원에서는 당조직의 지도밑에 모든 의료일군들이 언제 어디서나 조국방위전쟁시기 화선군인들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살며 일해나가도록 함으로써 치료예방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겠다.

누구나 립현단동무처럼 중도반담이 없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맡은 환자의 건강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도록 할뿐 아니라 치료예방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집체적지혜와 열정을 합쳐 풀어나가겠다. 하여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힘있게 과시하겠다.

황해북도인민병원 원장 리성철

우리 진료소는 두에산골군으로 알려진 초산군 읍에서도 수심이 떨어진 곳에 자리잡고있다. 그러므로 하여 바다 먼 산골군에서 우리가 치료하는 산모들에게 미역국을 보충해주고 꿀과 달걀을 공급해주는것과 같은 자그마한 소행들을 지금껏 자랑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평범한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한몫 들이지 않고 의학공부를 시켜주었음뿐 아니라 인민건강의 기사로까지 내세워준 당의 은혜를 순간도 잊지 않고

대판군의 로동자처녀를 위해 오랜 세월 지극한 정성을 바쳐온 립현단동무의 감동깊은 소행을 들으며 우리는 뜨거운 격정과 함께 커다란 자책감을 받아안았다. 우리도 립현단동무처럼 환자를 자기의 혈육처럼 대했는가고 돌이켜볼 때 정말 생각되는바가 많다.

지금 우리 진료소의 의료일군들은 립현단동무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본받아 키워주고 내세워

정성은 높은 의술을 지닐 때 빛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의학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것은 오늘 보건부문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감동없는 읽을수 없는 한편의 기사가 우리 보건일군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오늘날 환자들을 위해 바치는 정성은 과연 무엇으로 담보되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을 나는 기사에서 찾아보았다.

《피와 살을 바쳐서 될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정성과 헌신만으로 해결할수 없는, 세계적으로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미용의과학의 최첨단의 영역을 돌파해야 하는 심각한 현실이 립현단동무의 앞길을 가로막고있었다.》

몇년전 립현단동무가 굳은 결심을 품고 떠났던 그 최첨단의 길이었지만 오늘 대판군처녀의

얼굴에 쏠 밝은 웃음을 과연 상상이나 할수 있었는가.

《오늘의 시대는 보건일군들에게 인민을 위하여 자신을 바치는 지극한 정성과 함께 자기 분야에서 세계제권을 휩쓸수 있는 뛰어난 실력을 요구하고있다. 립현단동무가 스스로 선택하고 8년세월을 헤쳐온 그 길은 당과 국가의 은혜로 의학공부를 하고 인간생명의 기사를 지닌 우리의 보건일군들에게 참으로 귀중한 생활의 진리를 이야기해주고있다.》

나는 이 대목을 몇번이나 곱씹어 읽었는지 모른다. 과연 우리 보건일군들이 이 기사의 주인공처럼 당과 국가로부터 받아안은 크나큰 사랑과 은혜를 천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밤을 지새우고 또 자기의 한몸을 강고리 불태워왔는가. 정면이 기사에 우리 시대 보건일군들의 참다운 정성은 높은 의술을 지닐 때, 자기 한몸을 초발처럼 태울 때 더욱 빛난다는 귀중한 진리를 우리모두에게 심어주었다.

일찌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의료일군들의 지극한 정성에 높은 의학과학기술이 결합되면 사경에 처한 환자로 살려낼수 있고 그 불치의 병도 고칠수 있다고 간곡하게 교시하시였다.

시대는 발전하고있으며 의학과 기술은 참관을 향해 비약하고 있다. 우리의 모든 의료일군들이 뜨거운 인간애와 함께 자기 분야에서 세계적인 패권을 쥔것을 오늘을 위하여 요구하고있다.

립현단동무와 같은 아름다운 정신세계와 높은 의학과학기술을 소유한 훌륭한 의료일군을 키워낸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일군들의 열의와 헌신은 선진적으로 뛰어넘어가는 방법론있게 짜고들었다. 그리하여 병원의 모든 의료일군들을 립현단동무와 같은 뜨거운 인간애와 높은 실력을 지닌 시대의 청년 의료일군들로 준비시켜나갔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 원장 홍석관

천리마시대 그때처럼

나도 너도 사회주의의 딸이라고, 당과 사회주의제도의 품에서 나도 자라고 너도 자라나우면 모두 한가정, 한식솔이라 그 또한 립현단동무의 맑은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은 여운을 안겨주었다.

한 처녀를 위해 바쳐온 립현단동무의 사랑과 정성이 웨서 그리도 불같은것이였는가 이 한마디 말속에 다 어려있기때문이다.

우리 흉남비료공장병원의 의료일군들도 사회주의의 한지붕아래서 함께 살고있는 흉남비료공장의 로동자들을 위한 치료사업에서 전례없는 헌신을 창조해갈 결심을 더욱 굳히고있다.

감회도 새로운 주제 42 (1953)년 10월 어느날 흉남비료공장병원을 찾으신 어머니수령님께서는 흉남비료공장의 건강을 동무들에게 말하고 간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후 화상을 입은 한 소년은

기적으로 소생시켰을 때에는 못내 만족해하면서 사랑의 편지도 보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우리는 화상당한 한 처녀의 얼굴을 다시 찾아 밝은 미소로 안겨주어준 당과 로동당 단세포가 힘있게 울려 퍼지던 립현단동무의 모범을 본받아 최선의과학기술을 땀방울에 받아들이기 위한 힘찬 전투를 적극적으로 벌여나갔다.

그러하여 자기의 피와 살을 다 바쳐 천리마시대 보건의료일군들의 품으로 남겼던 1960년 흉남비료공장병원의 전세대대로 온 나라에 정성의 불길을 다시한번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도 전국의 앞장에 서겠다.

당면하여 얼마전에 화상을 입고 입원한 한 로동자녀를 긴급중치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로동당 단세포가 흉남비료공장에 힘있게 울려 퍼지게 하겠다.

흉남비료공장병원 부원장 한희철

흥성은 새해 축하장매대

새해를 앞두고 평양축하장 기념품상점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물결이 그칠새 없다. 새해 축하장매대에는 남다른 손님들로 흥성이다. 손님들의 기호에 맞게 여러가지 형태의 새해축하장을 봉사해주는 봉사자들의 얼굴에도, 손자의 손목을 잡고 상점

에 찾온 할머니의 얼굴에도 웃음이 함박이 었다. 이채롭게 만들어진 축하장을 사들자마자 그 자리에서 새해축하의 글줄들을 벌써 고르느듯 방앗이 웃는 처녀들의 모습은 또 얼마나 량만애 넘쳐있는것인가.

해마다 찾아오는 상점이지만

뜻깊은 새해 2015년을 눈앞에 둔 오즈음 이곳에 오는 손님들의 심정은 무다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올레에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사회주의생활을 활짝 꽃피우고 강성국가건설에 이바지하며 힘있게 달려나가는 길에 애환이 넘쳐나고 있다.

그 모든것을 다 비껴안고 한자, 두자 새해 축하장매대에 힘있게 새겨질 것이다. 우리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새해를 더 잘 만들어내자. 건강한 몸으로 새해에도 공부를 잘하고 맡은 일을 더 잘 해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해가자.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리진영

장수자할아버지가 받아안은 은정어린 생일상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 은백년제 생일을 맞은 황해남도 삼천군 읍에서 살고있는 혁명 할아버지에게 은정어린 생일상을 보내시였다.

주제 3(1914)년 경기도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일제식민지시대의 암담한 시기에 일찌기 부모를 잃고 떠돌이생활을 하면서 풀밭이군으로 갖은 천대의 명시를 받으며 살았다.

해방후 미제 강점한 남평

에서 우리 공화국북반부를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며 살아오던 할아버지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격적인 일시적후퇴시기에 단호히 북평에 출사하였다.

그는 흠뻑이 주된 삶을 안겨준 당의 은리에 조공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한생을 땅과 함께 살면서 파업농사에 애국의 구슬땀을 바치였다.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운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년로보장을

받은 다음에도 할아버지는 일손을 놓지 않았다.

편식을 모르는 할아버지는 언제나 락천적으로 살고있다.

은정어린 생일상을 받아안은 혁명 할아버지는 걱정에 넘쳐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 다함없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가족, 친척들에게 당의 크나큰 은덕을 언제나 잊지 말고 팔려진 혁명과업에 힘있게 모은것을 다 바쳐갈것을 당부하였다.

평도밑에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나라의 주권을 수호하고 부강조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들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겠다고 썼다.

로만 오스발도 히메네스 오메가 쿠바공화국대사관 무판은 김정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의 불멸의 힘을 느끼었다고 썼다.

찰리드 엘셰드 모함마드 아흐마드 에지트 이라프공화국대사관 무판은 전시시대의 자들은 조선의 위대한 령도자들에게서 이룩한 신 업적과 조선인민의 슬기와 재능을 보여주었다고 썼다.

【조선중앙통신】

주조 무관단 평양문화전시관 참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조선인민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33주년 기념주조 무관단이 29일 평양문화전시관을 참관하였다.

무관단원들은 위대한 사상과 특출한 령도력, 숭고한 인력으로 조선인민군을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이 땅에서 사회주의몽명국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김정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이어 그들은 백두산 절세위인님께서 집필하신 불후의 고전적작품들이 편찬된 도서들을 비롯한 우리 나라 도서들을 돌아보았다. 참관을 마치고 손님들은 강성국을 글로 남기였다.

메 주이 롱 헬남사회주의공화국대사관 무판은 참관을 통하여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혁명

조선과 쿠바정부사이의 정서들

경계상과 헤르만 에르민 페라스 알바레스트럼전대사가 의정서들에 수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애국의 열정 다 바쳐 겨울철훈련에서 혁신을

체육성과 그 아래단

위의 일군들이 드높은 신심과 락관에 넘쳐 새년도 교수훈련의 첫 공경인 겨울철훈련에서부터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한 정책적지도도 힘있게 내밀고있다.

이들은 당의 체육정책에 대한 정치관철의 의지로 심장을 끓여서 겨울철훈련이 시작되기 10여일전에 벌써까지 체육단들에 달려나가지도 사업을 힘있게 벌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체육부서 일군들은 당과 혁명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을 깊이 자각하고 체육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겠습니까.》

당정책관철의 전초병들

체육성에서

올해의 자랑한 국제경기성과들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체육국건설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열의의 하나가 다름아닌 이번 겨울철훈련에서의 겨울철훈련조직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로해하고 적극적인 대책들을 세워나갔다.

세계적인 체육발전수준에 맞게 체육단에서 선수들의 육체적능력을 최대한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겨울철훈련기간의 교수훈련계획을 보다 과학적으로 세우도록 지도사업을 짜고들었다.

겨울철훈련의 성과여부가 조건보장사업에 크게 달려있다는것을 명심한 지도일군들

은 해당 단위에서 제기되는 체육기재보장을 비롯한 현실적인 문제점과 선수들의 생활조건보장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로해하고 그 해결대책을 기동성있게 세워나갔다.

체육성과 그 아래단 위 일군들의 지도사업열의에 더욱 불을 달아준것은 당의 의도대로 체육에 대한 관심을 더 높이며 체육단들의 겨울철훈련조건보장사업을 힘있게 떠맡은 각지 당, 정권기관 일군들의 적극적인 일본분였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겨울철훈련조건보장사업을

적극 떠맡아주고있는 각지의 박찬 승결에 고 무던 체육성과 그 아래단 위 일군들은 해당 지역의 책임일군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체육단들의 육체훈련, 야외육체훈련, 종목별훈련장 등을 일신시키기 위한 지도사업열의를 높이며 정보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수훈련의 과학화수준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환경이 더욱 튼튼히 마련하는 사업에서 큰 성과를 이룩하였다.

당의 체육정책관철의 전초병인 책임일군들이다. 현실에 깊이 들어가 참신하게 겨울철훈련조건보장사업에 대해 각지의 체육단에서 겨울철훈련에서부터 비약의 불바람이 더욱 세차게 일어날지 하는 믿음이 되고있다.

본사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쿠바공화국 정부사이의 2015년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발전

진을 위한 회의의정서와 2015년 상품교류에 관한 정서가 29일 평양에서 조인되었다.

조선인민군은 우리측에서 리봉남내외경제상과 관계부서 일군

조선과 쿠바정부사이의 정서들

들이, 상에서 헤르만 에르민 페라스 알바레스 주조 쿠바공화국 특명전대사와 대사관 성원이 참가하였다. 리봉남내외

몰아치는 백두의 훈련열풍

평양 체육단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체육선수들은 주체조선의 영예를 떨치겠다는 포부와 세계패권자가 되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훈련을 정열적으로 완강하게 하여야 합니다.》

겨울철훈련에 기세드높이 진입한 평양체육단에 백두의 훈련열풍이 세차게 몰아치고 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단장 김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이번 겨울철훈련기간 선수들의 육체적능력을 최대한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정치사업의 도수를 부단히 높여가고있다.

훈련과 동떨어진 사상사업은 백날, 찬날을 해도 필요 없다는 판정에 확고한 신 일군들이 심도있게 벌리는 정치사업은 감독, 선수들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리고있다. 선수들 누구나가 기어이 세계를 압도할수 있는 강한 육체적준비를 갖추어 아시아와 세계제권을 틀어쥐고야만 비상한 의지로 가슴을 넓히게 하고있다.

황해북도대권도선수단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선수들이 훈련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체육시설과 기재, 숙식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얼마전 황해북도대권도 선수단에서는 이례적인 평양이 펼쳐졌다.

《단장동지, 그몸으로 어떻게...》

종업원들의 간절한 눈빛을 둘러보며 《아니, 이 길만은 내가 꼭 가야 할 길이지요.》라고 말하고서 차에 오르는 사람은 다음날 단장 장동서동무였다.

민꽃에 있는 탄광을 향하여 점점 속력을 높이는 자동차를 바라보는 종업원들의 눈앞에는 며칠전 전희의 희광이 언뜻언뜻 스쳐지나갔다.

그날 주되는 문제의 하나로 토론되었던 바로 열 감보장문제였다.

육체훈련을 하느라 땀을 많이 흘려온 하는 선수들을 위해 목욕탕의 물온도도 보장하고 휴게실들도 보다 훈훈하게 해주자면 현재의 선택대응으로서는 부족하였던것이다.

이제 고무원 감독들과 선수들은 겨울철훈련의 첫날부터 겨울철훈련이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부려가고있다.

조국의 금메달을 위한 길에 비상한 각오와 투지로 분발해나선 각지의 체육부서 일군들과 체육인들의 불타는 애국의 마음은 내 조국을 체육강국으로 내세워 그날을 더욱 앞당길것이다.

주 령봉



육체훈련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기관차체육단 선수들



정성인민병원에서 립현단동무의 정신세계를 따르며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의료일군들

반공화국 <인권>모략, 체제대결책동을 천백배로 결산할 것이다

우리는 올해에 북남관계개선의 세력 세를 써나가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우리는 년초부터 불신과 대결의 불미스러운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조국통일을 위한 전향적국면을 마련할 애국의 의지를 애국 남조선당국에 관계개선을 위해 함께 손잡고나갈데 대한 국방위원의

중재제안과 공개서한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시기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통이 크고 대범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하지만 우리의 성의로 모처럼 마련되었던 북남관계개선의 좋은 기회들은 쌍방향의 파기하면서까지 외세와 결탁하여 반공화국<인권>모략, 체제대결책동에 피논이 되어 미쳐남된 남조선피괴들의

배신적이며 극악무도한 망동으로 말미암아 웅담찬 성파에 이어지지 못하였다. 이해의 마지막나날을 보내고있는 지금 해내외의 온 겨레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 높은 영상을 호령하고 동족의 사상과 제도를 한사코 해질 흉악한 계획범에 북남관계개선을 외면하고 온 한해동안 대결소동에 광분한 괴뢰당에게 저주를 부렸고있다.

북남관계의 파국속에 2014년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오늘의 비극적현실은 남조선괴뢰당국이 동족을 적대시하며 대결정책에 계속 매달리는 한 북남사이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다 해도 그것은 무용지물로밖에 될수 없으며 관계개신도 이루어질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있다. 본사기자 은 정철

대결책동을 천백배로 결산할 것이다

악랄하게 감행된 반공화국심리모략전

최근 남조선의 한 인터넷사이트에는 이런 글이 실리었다. <북은 년초부터 남남관계개선의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한 적극적인이 현실적인 제안, 조치들을 연속적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현 <정권>은 북의 체제와 모순에 대한 비방중상을 그치지 않았다. 겉으로는 신뢰와 관계개선을 의무면서도 실지행동에서는 대결자세를 보이고 화해와 협력을 외면한 현 <정권>에 대해 남북관계는 다시 최악의 파국상태를 맞고있다.>

현 북남관계개선의 원인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랄한 분석이라고 할수 있다.

올해 괴뢰피괴당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에 대결망동으로 대답하였다. 우리 공화국의 최고주요정책을 악의에 차서 비방중상하는 도발적인 배사살포를 비롯한 심리모략소동은 그 대표적사례이다. 그 어느때보다 광범적으로 벌어진 남조선괴뢰들의 반공화국심리모략은 우리 비방중상을 증진할데 대한 북남합의가 휴지장으로 되고 관계개선의 아까운 기회를 온다 사사저버렸으며 최악의 대결상태가 년중 지속되었다.

괴뢰들은 반공화국심리모략전의 강화를 <북북정책>실현의 주요수단으로 정하고 년초부터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는 배사살포를 전례없이 기승을 부렸다. 지난 2월 우리와 비방중상을 증진하기로 합의하고는 그

인크가 제 마르그도 전에 남조선강원도 철원, 경기도 원천, 파주 등 군사분계선내에서 불순한 내용의 배사살포를 대량살포하는 파렴치한 망동을 감행하였다. 괴뢰군부대장은 <북북정책>을 배사살포하는 비방중상을 속하지 않는다.>는 터무니없는 꾀를 늘어놓으며 <K-9>사형포를 늘어놓으란의 개발배비에 달려있으며 <리 리콜>,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감행되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군사적긴장이 극도로 첨예한 조선서해 5개 섬 일대에서 반공화국배사살포소동을 또다시 벌였다. 더우기 문제를 뒤흔는 괴뢰당국이 조국을 반역한 인간쓰레기들을 내세워 배사살포를 벌리는 방법으로 그 책임이 벗어날려고 교활하게 책동한것이다. 괴뢰당은 배사살포에 대해 그 무슨 <표현의 자유>, <제1시절 <법적근거>가 없다.>느니 하는 어찌구무없는 수작으로 정당화해나섰는가 하면 지니 배사살포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핑계에는 변함이 없다고 고아래도 우리에게 한사코 도전해나섰다.

한편 인간추물들을 배후에서 적극 지원하고 이것들의 등을 떠밀어주었다. <대통령>의속구로 만든 <국민대통합위원회>와 <통일준비위원회>에 반공화국배사살포소동을 끌어들이고 <민간경장보수조급>, <활동비>니 하는 등의 각종 명목으로 배사살포책동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은 것은 그 대표적사례이다. 그뿐이 아니다. 배사살포를 일명 <공선

작전>으로 명명한 괴뢰당국은 인간쓰레기들에게 배사살포용선에 설치할 위장함방장지와 바람방향, 속도에 따라 기구를 조절하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무상으로 대주었으며 배사살포가 감행되는 시각에는 전연지대의 괴뢰군부대들이 단단의 대비태세를 갖추게 하였다.

괴뢰당국의 이런 로물결인 비호와 부추김에 기고만강해진 인간쓰레기들은 갈수록 기승을 부렸다. 사람감에도 들지 못하는 이 추물들은 지난 9월 우리 선수단의 참가하에 인연에서 제 17차 아시아 경기대회가 한창 진행되는 시각 우리에 대한 악의에 찬 비방중상을 일일한 수심만장의 배사살포를 살포하는 비괴적망동을 저질렀다.

배사살포망동으로 우리의 존엄을 사회주의제도의 영상을 모욕하고 반공화국입암아방을 한사코 실현하려는 괴뢰들의 흉악한 정세는 지난 10월 우리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행의 인연방으로 마련된 대외관계 회의는 기피까지 깨버리며 도발소동에 광분한데서 여실히 드러났다. 당시 괴뢰들은 <북의>의 위급이 왔다고 핑계를 비우는 일도 없다.>는 고약한 망발을 제치며 군사분계선내에서 인간쓰레기들을 통한 배사살포소동을 또다시 벌였다.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그들의 대결책동에 대한 남조선 각계의 단사적반응은 소수외가 높이고 군사분계선내의 주민들과 청년학생들, 시민단체들이 떨

쳐나 항의투쟁을 전개하자 악에 받친 괴뢰당은 경찰부력을 내몰아 닥치는대로 탄압하고 전선사부와 중부를 비롯한 광범한 지역에서 배사살포소동의 판을 더욱 크게 벌였다. 이것은 그야말로 북남관계개선의 오솔길을 대롱로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신의와 애국에적극노력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물, 모독이며 도전이었다. 바로 강요된 남조선괴뢰들의 법적적인 반공화국배사살포로 하여 온 겨레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일정에 올랐던 제 2차 북남고위급접촉은 끝끝내 성사되지 못하였다.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비열한 심리모략전으로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격화시키고 군사적충돌의 위험까지 서슴없이 몰아온 괴뢰당의 반공화국배사살포는 그지없는 애기봉등소동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10월 어느날 반공화국심리모략의 거점인 애기봉등이 철거된 사실을 알게 된 괴뢰당원들은 <애 등탑을 없앴는가, 도대체 누가 결정했는가.>고 노발대발하였다. 집권자의 독기처럼 호통질에 화를먹고 놀란 괴뢰당원들이 <애 등탑을 즉시 수백여천의 예산을 투입하여 인연에서 기존 의것보다 두배이상 높은 전당대회 전정관을 설치하여 조선전정영상을 새로 세우는 등 애기봉등탑을 보다 확장계획을 세우고 그 실현에 달려들었다.>

이렇게 되자 기가 오른 <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한 종교의

말을 쓴 대결책동자들은 <등탑건립추진위원회>라는것을 만들고 기부금을 모은다 어떤대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자들은 애기봉등탑에 대해 터무니없이 그 무슨 <회합의 불빛>이니, <영화의 상징>이니 하는 파렴치한 나발을 늘어놓으며 크리스마스를 계기로 립시시설물을 세워놓고 거기에 불을 켜겠다고 피논이 되어 나타났다. 이에 격분한 남조선의 각계 단체들과 애기봉등탑추진위원회는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열고 반역괴당의 망동을 <총들의 도화선에 불을 다는 행위>, <사실상의 전쟁행위>로 준엄히 단죄구판하면서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조장하고 군사적충돌의 위험한 고지시기에 애기봉등탑을 제거하라는 당장 전지하라는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괴뢰군은 <종교활동의 자유보장>이니 뭐니 하는 황당한 구실을 내세우면서 애기봉등탑과 관련한 악질적인 보수종교단체의 신청을 허가해주는 도발적망동을 저질렀다.

또한 반공화국배사살포에 매달렸으므로 모처럼 년말에 이르러 광범적인 애기봉등탑소동을 벌리며 반공화국심리모략에 미쳐남은 괴뢰당원들이야말로 천하에 둘도없는 대결책동자들이라. 너절하지 그지없는 심리모략, 배사살포로 우리 공화국을 헐뜯어오란게 야만하게 벌려놓았으며 <인권도모략>화와 책자까지 만들어내들리며 <북인권법>조작을 부채질하였다. <북인권법>으로 말하면 잊지

남조선괴뢰들의 불순한 체제대결책동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통일헌법>조작책동을 통하여서도 날같이 드러났다.

올해에 들어서면서 체제대결책동을 본격화할 기도에 <대통령>의속구로 <통일준비위원회>라는것을 만들어낸 괴뢰당은 온 신하에 각 부과를 두고 <통일대비>, <공감대형성>이니 하며 분주함을 피워냈다.

그 앞에서는 괴뢰정권이 서 있었다. 8. 15를 며칠 앞두고 <통일준비위원회>의에코를 들이민 그는 가소문게도 그 무슨

집권자의 수표를 받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고 공언하였다. 그리고 그 불순한 문서장을 앞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성실의 통일지침>으로 만들겠다고 떠들었다. 이것은 괴뢰당이 <통일헌법>이라는것을 완전히 철폐하여 북남사이의 체제대결을 통한 정교착시하려는 야만 무한 기도의 발로였다. 괴뢰들이 운운하는 <통일헌법>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우리의 존엄은 사회주의제도를 해치고

더욱 미친듯이 <발광했다>. 괴뢰정권자는 <통일준비위원회> 제 2차회의라는것을 벌려놓고 <통일헌법>을 총일회 준비하였다. <3>기회를 충실히 이어나가 <3>회의에 또다시 나타나 <북의 의미>는 <변화>니 뭐니 하고 악당질하면서 <북인권법>을 반대하여 운운하며 <통일헌법>안을 작성하였다 고고하였다. 보 다같이 <통일헌법>조작을 고안해내고 그 실행을 직접 주도한 괴뢰의 장본인은 다름아닌 괴뢰 집권자이다.

남조선괴뢰정권자가 이렇게 악랄한 <통일헌법>조작에 앞장서 달려나 북남관계가 어떻게 파국에 처하지 않을수 있었는가. <통일헌법>조작책동은 그야말로 비참한 파멸을 눈앞에 둔 체제모략의 헛된 무부림이며 체제통일은 언제 가도 실현될수 없는 꾀이다.

북과 남이 합의하고 온 세상에 선포한 민족공동체의 통일대강을 부정하고 불순하여 <통일헌법>조작에 매달리면서 대결을 격화시키고 자주통일의 앞길을 가로막는 괴뢰피괴당의 반공화국배사살포를 역사와 민족은 철저히 결산할것이다.

괴뢰정권자는 지난 3월 유엔무대에서 미국의 비법적인 대조선<인권결의>조작책동에 강요된것과 때를 같이하여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싸움치며 기자회견, 강연마련을 벌여놓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자들의 현실을 터무니없이 괴곡하면서 미친게처럼 날뛰었다. 괴뢰의 고위장관들은 <통일헌법>을 부추김을 비롯한 고의 추태도 <심각한 우려>,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조치>니 하고 맞장구를 치며 다른 나라에 <북인권법>문제를 편편하여 저들과 보조를 맞추어달라 고 애걸부렸었다. 괴뢰당은 <북인권법>문제를 편편하여 <국제사회가 무력개입을 할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떠벌이면서 잊지도 않는 <북인권법>문제를 구실로 의

체제통일의 개꿈에 사로잡혀

<통일로 이끄는 길안내>니 뭐니 하는 수작을 늘어놓으며 <통일헌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고고하였다. 그도 <통일준비위원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평가지들은 매일같이 공중편지를 벌리면서 <자유,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를 기초로 하는 <통일헌법>이라는것을 만들어내겠다고 소란하게 날뛰었다.

이런 속에 지난 10월 <통일준비위원회>가치를 기초로 하는 <통일헌법>이라는것을 만들어내겠다고 소란하게 날뛰었다.

이런 속에 지난 10월 <통일준비위원회>가치를 기초로 하는 <통일헌법>이라는것을 만들어내겠다고 소란하게 날뛰었다.

자들의 썩어빠진 미국의 식민주의체제를 전조선내에 부식시켜서 <통일헌법>을 기초로 하고 <통일헌법>이라는것을 만들어내겠다고 소란하게 날뛰었다.

이런 속에 지난 10월 <통일준비위원회>가치를 기초로 하는 <통일헌법>이라는것을 만들어내겠다고 소란하게 날뛰었다.

라는 우리 민족이 어떻게 보고 만 있을수 있었는가. 하기에 <통일헌법>을 조작하려는 괴뢰당국의 책동은 남조선과 해외의 광범한 각계층 인민들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을 불러일으켰다. 남조선인민들은 <통일헌법>조작이 가짜이니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는 더욱 위급한 상태에 몰아갈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그 중지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하지만 괴뢰당국이야말로 끝까지 버티고 남조선보수집정세력은 <통일헌법>을 기어코 꾸며내려고

로 밟고있다. 남조선이 악명 높은 <유신>독재시대로 완전히 되돌아갔다는것이 남조선 각계의 정이다. 남조선신론 <언론계>는 이렇게 전하였다.

<막근혜는 <헌법재판소>결정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킨 역사적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 결정에는 어떤 <자유>도 <민주주의>도 찾아볼수 없다. 오히려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침해당하고 표현의 자유는 자유로워졌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겠다는 가 하는것은 처음부터 명백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 각계는 통합진보당해산사태의 본질은 <유신>독재를 되살리기 위한 쿠데타라고 평하고있다.

세계는 1933년 2월 히틀러가 베를린국회의사당방화사건을 조작하고 그것을 구실로 공산당을 비합화한 후 사회전반에 반공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정치적인대세력을 숙청하여 파쇼체제를 구축한 사실을 잊지 않고있다. 남조선의 <유신>독재자도 인민혁명당사건, 민청학살사건, 울릉도간첩단사건, 남조선적화공작단사건 등 각종 간첩단사건들을 조작하여 진보진인 통일애국인사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파쇼독재체제를 구축하였다. 남조선의 현 괴뢰정권자는 히틀러와 <유신>독재자의 전철을 그대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인권>소동을 더욱 요란히 벌리고 그것으로 더러운 체제대결책동을 실현하려는것은 남조선괴뢰들의 고질적인 수법이다. 미국의 대조선<인권결의>조작책동에 하수인이 되어 동족을 모해할살하려는 괴뢰당의 망동은 올해에 그 어느때보다 절정을 이루었다.

괴뢰정권자는 지난 3월 유엔무대에서 미국의 비법적인 대조선<인권결의>조작책동에 강요된것과 때를 같이하여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싸움치며 기자회견, 강연마련을 벌여놓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자들의 현실을 터무니없이 괴곡하면서 미친게처럼 날뛰었다. 괴뢰의 고위장관들은 <통일헌법>을 부추김을 비롯한 고의 추태도 <심각한 우려>,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조치>니 하고 맞장구를 치며 다른 나라에 <북인권법>문제를 편편하여 저들과 보조를 맞추어달라 고 애걸부렸었다. 괴뢰당은 <북인권법>문제를 편편하여 <국제사회가 무력개입을 할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떠벌이면서 잊지도 않는 <북인권법>문제를 구실로 의

독재시대를 되살린 정치강패행위

로 밟고있다. 남조선이 악명 높은 <유신>독재시대로 완전히 되돌아갔다는것이 남조선 각계의 정이다. 남조선신론 <언론계>는 이렇게 전하였다.

<막근혜는 <헌법재판소>결정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킨 역사적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 결정에는 어떤 <자유>도 <민주주의>도 찾아볼수 없다. 오히려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침해당하고 표현의 자유는 자유로워졌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겠다는 가 하는것은 처음부터 명백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 각계는 통합진보당해산사태의 본질은 <유신>독재를 되살리기 위한 쿠데타라고 평하고있다.

세계는 1933년 2월 히틀러가 베를린국회의사당방화사건을 조작하고 그것을 구실로 공산당을 비합화한 후 사회전반에 반공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정치적인대세력을 숙청하여 파쇼체제를 구축한 사실을 잊지 않고있다. 남조선의 <유신>독재자도 인민혁명당사건, 민청학살사건, 울릉도간첩단사건, 남조선적화공작단사건 등 각종 간첩단사건들을 조작하여 진보진인 통일애국인사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파쇼독재체제를 구축하였다. 남조선의 현 괴뢰정권자는 히틀러와 <유신>독재자의 전철을 그대

리유로 내세운것자체가 이 당을 해산시킨 저들의 망동의 부당성을 스스로 인정했으면 된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나 정당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있으며 지어 서방자본주의나라들에서도 파쇼정당들이 합법적으로 활동하고있다. 그러나 남조선에 군림하여 독재통치권력을 유지해가는 괴뢰보수당은 진보세력들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조금도 허용하지 않고있다. 현상이 이렇진대 어떻게 남조선에 민주주의와 인권이 있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강제해산소동은 이미정부부터 이 당을 없애버리고자 하는 현 괴뢰정권세력의 비열한 정치적음모의 산물이다. 괴뢰당은 저들의 반역정당들을 비탄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앞장서서 투쟁해온 통합진보당을 눈에는 가시처럼 여겼다. 특히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이 당대표가 <당인은 왜 출마했는가?>고 묻는 현 집권자에게 <바로 당인을 락신시키기 위해 출마했다.>고 쏘아붙인대 대한 앙갚음으로 이 당을 겨냥한 본격적인 정치적사냥에 들어갔다. 괴뢰보수세력들은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통합진보당이 제 2야당으로 등장하게 되자 <중복세력>이 국회를 장악하게 되었다. >고 야단법석하면서 이 당을

말살하기 위한 일대 <중복>평판을 일으켰다. 파쇼괴뢰들은 통합진보당부정선거사건이라는것을 조작하였다. 그것만으로는 이 당을 정치적으로 매장시킬수 없게 되자 리석기내란음모사건이라는 어마어마한 모략사건을 꾸며냈다. 그리고 괴뢰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해산심판정규안을 긴급안건으로 상정, 통과시켜 <헌법재판소>에 넘겼다. 괴뢰보수당이 파우시하는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겠다는 가 하는것은 처음부터 명백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 각계는 통합진보당해산사태의 본질은 <유신>독재를 되살리기 위한 쿠데타라고 평하고있다.

세계는 1933년 2월 히틀러가 베를린국회의사당방화사건을 조작하고 그것을 구실로 공산당을 비합화한 후 사회전반에 반공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정치적인대세력을 숙청하여 파쇼체제를 구축한 사실을 잊지 않고있다. 남조선의 <유신>독재자도 인민혁명당사건, 민청학살사건, 울릉도간첩단사건, 남조선적화공작단사건 등 각종 간첩단사건들을 조작하여 진보진인 통일애국인사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파쇼독재체제를 구축하였다. 남조선의 현 괴뢰정권자는 히틀러와 <유신>독재자의 전철을 그대

미중앙정보국의 야만적인 고문만행 규탄

로 밟고있다. 남조선이 악명 높은 <유신>독재시대로 완전히 되돌아갔다는것이 남조선 각계의 정이다. 남조선신론 <언론계>는 이렇게 전하였다.

<막근혜는 <헌법재판소>결정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킨 역사적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 결정에는 어떤 <자유>도 <민주주의>도 찾아볼수 없다. 오히려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침해당하고 표현의 자유는 자유로워졌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겠다는 가 하는것은 처음부터 명백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 각계는 통합진보당해산사태의 본질은 <유신>독재를 되살리기 위한 쿠데타라고 평하고있다.

세계는 1933년 2월 히틀러가 베를린국회의사당방화사건을 조작하고 그것을 구실로 공산당을 비합화한 후 사회전반에 반공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정치적인대세력을 숙청하여 파쇼체제를 구축한 사실을 잊지 않고있다. 남조선의 <유신>독재자도 인민혁명당사건, 민청학살사건, 울릉도간첩단사건, 남조선적화공작단사건 등 각종 간첩단사건들을 조작하여 진보진인 통일애국인사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파쇼독재체제를 구축하였다. 남조선의 현 괴뢰정권자는 히틀러와 <유신>독재자의 전철을 그대

로 밟고있다. 남조선이 악명 높은 <유신>독재시대로 완전히 되돌아갔다는것이 남조선 각계의 정이다. 남조선신론 <언론계>는 이렇게 전하였다.

<막근혜는 <헌법재판소>결정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킨 역사적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 결정에는 어떤 <자유>도 <민주주의>도 찾아볼수 없다. 오히려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침해당하고 표현의 자유는 자유로워졌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겠다는 가 하는것은 처음부터 명백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 각계는 통합진보당해산사태의 본질은 <유신>독재를 되살리기 위한 쿠데타라고 평하고있다.

세계는 1933년 2월 히틀러가 베를린국회의사당방화사건을 조작하고 그것을 구실로 공산당을 비합화한 후 사회전반에 반공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정치적인대세력을 숙청하여 파쇼체제를 구축한 사실을 잊지 않고있다. 남조선의 <유신>독재자도 인민혁명당사건, 민청학살사건, 울릉도간첩단사건, 남조선적화공작단사건 등 각종 간첩단사건들을 조작하여 진보진인 통일애국인사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파쇼독재체제를 구축하였다. 남조선의 현 괴뢰정권자는 히틀러와 <유신>독재자의 전철을 그대

로 밟고있다. 남조선이 악명 높은 <유신>독재시대로 완전히 되돌아갔다는것이 남조선 각계의 정이다. 남조선신론 <언론계>는 이렇게 전하였다.

<막근혜는 <헌법재판소>결정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킨 역사적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 결정에는 어떤 <자유>도 <민주주의>도 찾아볼수 없다. 오히려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침해당하고 표현의 자유는 자유로워졌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겠다는 가 하는것은 처음부터 명백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 각계는 통합진보당해산사태의 본질은 <유신>독재를 되살리기 위한 쿠데타라고 평하고있다.

세계는 1933년 2월 히틀러가 베를린국회의사당방화사건을 조작하고 그것을 구실로 공산당을 비합화한 후 사회전반에 반공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정치적인대세력을 숙청하여 파쇼체제를 구축한 사실을 잊지 않고있다. 남조선의 <유신>독재자도 인민혁명당사건, 민청학살사건, 울릉도간첩단사건, 남조선적화공작단사건 등 각종 간첩단사건들을 조작하여 진보진인 통일애국인사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파쇼독재체제를 구축하였다. 남조선의 현 괴뢰정권자는 히틀러와 <유신>독재자의 전철을 그대

